

세계화를 위한 남녀 평등교육

김 재 인*

- I. 세계화와 청소년
- II. 청소년의 남녀 평등의식과 교육
- III. 세계의 각급학교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성차별 실태
- IV. 세계화에 대비한 청소년의 성차별 극복방안

I. 세계화와 청소년

세계화는 지구공동체화를 의미한다. 약 60억의 인구를 가진 지구의 시민으로서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알고 살아가는 태도와 능력을 키우도록 의식과 관행, 제도 모든 면에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단위가 아니라 지구단위로 생각하고 생활하며, 국가간 경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선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방화와 자율화, 정보화와 미래지향성, 차이에 대한 인내와 문화적 다양성 존중, 인간화 등을 논의의 핵심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실행토록 해야 하며, 이들이 지구촌을 삶의 영역으로 설정할 때 세계와 한국을 어떻게 대비시키고,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설정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가를 고려하여 국가의 세계화 전략에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밝은 사회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자국 국민들이 세계화된 사회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세계 각국과 발맞추어 한국 역시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청소년들이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장애요인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가야 한다. 더구나 여성들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사회화되어 사회생활에서는 남성의 보조자로서 국외자, 주변인으로 위치해왔고, 소극적, 순종적일도록 교육받아 왔다. 이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가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탐구적, 창의적인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남성 주도적 사회분위기가 아직도 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본래 열등하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사회화 되어온 결과임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여성들은 가정생활에 알맞도록 교육되고, 남성들은 사회활동을 하기에 적절하게 사회화되어 왔다. 이러한 이분화된 교육적 상황은 청소년들의 의식을 고정시켜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원활하게 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은 세계에서 경쟁하여 국가적 이익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계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차인석, 1994). 이처럼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가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화 6대과제를 실천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중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수요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를 이룩하며, 자유·자율과 경쟁원리를 존중토록 하고 있다(조선일보, 1995). 세계화를 위해 교육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개인의 인성과 창의가 증시되도록 함과 아울러, 철저한 교육개혁과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를 평생학습사회로 만들어 국민전체의 총지적 자산을 일류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중시하고 있다(공보처, 1995).

신한국 건설과 함께 이러한 세계화 정책을 도

모코자 하는 정부는 특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국민을 양성하는 일에 역점을 두기 위해 교육개혁의 필요함을 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화를 통해 지구촌을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세계시민 육성에 장애요인인 남녀차별적 상황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소년의 남녀 평등의식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청소년의 의식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성역할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각국의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성차별적 상황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남녀 평등적 시각에 터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청소년의 남녀 평등의식과 교육

가. 남녀역할의 발달과 청소년

남녀역할은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고정되어 온 사회문화적 남녀의 역할구분을 의미한다. 사회문화가 남성·여성에게 기대하는 행동특성과 인성, 태도는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진다. 남녀역할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기대되는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역할과 일치되는 태도와 행동을 익히게 된다. 남녀역할을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은 사회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체계이다. 이러한 문화체계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반영된다.

남녀역할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대개 사회학습이론, 인지학습이론, 동일성이론을

참고로 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생물학적인 모형을 버리고 강화와 모델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내에서 인간행동의 결정요인을 찾으려 한 것이고, 인지학습이론은 남녀역할 형성과정을 동일시나 신체적, 문화적 차이로 보지않고, 경험을 통한 유아의 인지발달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동일시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동은 부모로부터 느끼는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부모를 동일시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이나 동일시이론은 부모의 상벌에 의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부모를 동일시하고 반복적 학습에 의해서 성유형의 정체감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는데 반해, 인지학습이론에서는 아동의 발달양식에 의해 성유형의 정체감이 형성된 다음, 동성의 부모를 모방하고 동일시하게 되며, 그 결과 성역할 개념이 형성된다고 한다. 성차의 형성과정은 어느 한가지 성역할이론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위의 세가지 이론이 상호보완되는 가운데 남녀의 성역할 차이가 형성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85, 1993).

남녀역할의 발달은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은 한국인의 발달단계를 유아기(0-5·6세), 아동기(6-11·12세), 청년전기(12-18·19세), 청년후기(19-24·25세), 성인전기(25-35세), 성인후기(35-60세), 노년기(60-)로 구분하고, 발달과업을 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인 부분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단계에 속하는 발달단계는 아동기와 청소년 전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선 국민학교 단계에서의 남녀역할 관련 발달과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기(6-11·12세)

(1) 지적 영역

- ①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을 배우기
- ② 친척들과 자기와의 관계나 존수 알기
- ③ 여러 직업의 종류와 그 하는 일 알기

(2) 정의적 영역

- ① 옷을 스스로 단정히 입기
- ② 소년은 소년답게, 소녀는 소녀다운 역할과 행동 배우기
- ③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습관 기르기
- ④ 양심, 도덕성, 가치관단의 기준을 발달시키기
- 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줄 알기

(3) 사회적 영역

- ① 친구들을 사귀고 사이좋게 지내기
- ② 간단한 집안일 돕기
- ③ 학교나 집단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하기
- ④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협동하는 것 배우기
- 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존중하기
- ⑥ 언행을 정직하게 하여 타인으로 부터 신뢰받기

(4) 신체적 영역

- ① 자신의 신체구조를 이해하고 신체에 대한 건전한 태도 가지기
- ②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호하기
- ③ 신체나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여 위생적으로 생활하기

이와 같이 아동기의 발달과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는 남녀에게 다른 기대를 한다. 이러한

다른 기대는 아동기로부터 성에 따라 다른 행동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자세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Janice Pottker and Andrew Fishel, 1977).

아동기 *The Early Years*인 2-3세까지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로 불리우다가, 4세가 되면 사회훈련을 통해 ‘남자일’과 ‘여자일’로 분류되어 상호 반대되는 다른 일을 갖지만, 각각의 성이 다른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5세가 되면 친구와의 관계에서부터 성역할이 강화된다. 이는 여아보다 남아가 더 엄격하다. 남자는 더 일관되게 성정형화된 장난감과 활동을 선택하고 좋아하며, 이러한 선호성은 초기 아동기에 더 강화된다.

6-7세가 되면, 아동들은 주위의 영향을 받아 성gender에 대해 좀더 명백한 사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소녀와 소년들은 모두 성정형화된 역할 *gender-stereotyped roles*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양성*both sexes*은 이 연령층의 집단과 성적으로 분리*sex-segregated*시켜 놀이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8-10세의 아동들은 여성과 남성을 위한 직업적 역할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성적으로 분리된 행동을 약간 감소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같은 성의 친구들과 지내기를 더 좋아한다.

국민학교에서의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슬픔, 자기비하, 신체적 불평의 감정을 똑같이 나타낸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행동과 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가진다. 다른 연구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자주 분노와 적의의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학교 여학생들의 강인함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등학교 여학생들의 높은 사기저

하울의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이 제시하고 있는 중등학교 단계에 속하는 발달단계인 청소년 전기의 남녀역할 관련 발달과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소년 전기(12-18·19세)

(1) 지적 영역

- ①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기
- ② 신체구조와 생리현상 및 성에 대하여 이해하기
- ③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기르기
- ④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기

(2) 정의적 영역

- ①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한 바른태도를 발전시키기
- ②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 ③ 성적 충동이나 감정을 통제하기
- ④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하기
- ⑤ 일생을 살아갈 지침의 가치를 획득하기

(3) 사회적 영역

- 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 ② 동료집단과 잘 어울리기
- ③ 존경하는 인물 본받기
- ④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기
- ⑤ 인권을 존중하기
- ⑥ 좋은 친구를 선택하여 우정을 두터이 하기

(4) 신체적 영역

- ① 체력과 체능을 증진시키기

- ② 자신의 신체적 구조나 생리적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기
- ③ 균형있는 체격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자세 취하기
- ④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 ⑤ 건강에 좋은 습관 기르기

3) 청소년 후기(19-24·25세)

(1) 지적 영역

- ①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하기
- ②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식 습득하기
- ③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 ④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익히기
- ⑤ 합리적인 준거에 비추어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갖추기

(2) 정의적 영역

- 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감 갖기
- ② 건전한 생활관 확립하기
- ③ 전통적인 생활관을 생활에 조화시키기
- ④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 능력과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태도 기르기

(3) 사회적 영역

- ① 적절한 결혼대상을 찾고 원만하게 교제하기
- ② 자기 가정 문화와 다른 가정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기
- ③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 ④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 ⑤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⑥ 원만한 대인관계 맺기

(4) 신체적 영역

- ① 체력과 체능을 증진시키기
- ② 건강을 위한 규칙생활 하기
- ③ 성에 대한 바른 태도 가지기

이와 같은 청소년 전기의 발달과업을 다시 중·고등학교 단계인 청소년 초기와 후기로 분류하여 보면 남녀역할 특성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Janice Pottker and Andrew Fishel, 1977).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ce}는 아동기 후반인 8-10세에 관찰될 수 있는 각각의 성에 적절한 행동의 융통성은 줄어들고, 성역할^{gender roles}에 대해 더 엄격한 규범이 고착화 된다. 소녀와 소년 모두 같이 행동하는 것을 각자가 허용하지 않는다.

청소년 초기는 양성에게 중대한 변화의 시기이며 소녀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시기이다. ‘어린 소녀’에서 ‘젊은 여성’으로 변화하는 동안 남성역할보다 명백히 덜 가치화된 여성역할을 할당받으면서 젊은 여성들의 성성을 개념화하고 착취하는 문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소녀들은 생리의 시작이 신체변화의 특수구실로서의 역할을 한다. 첫생리의 평균연령이 12세 정도이다. 그러나 연령의 범위는 폭넓어 10세 초반에서 16세 후반까지가 되기도 한다. 평균 사춘기는 소녀들에게는 끝날때 소년들은 시작되고 있다. 11-12세에 소년들과 소녀들의 차이는 특히 눈에 띈다.

성숙초기에 있는 소녀들에게 사춘기는 특히 노력을 요하는 시기이다.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은 신체적인 성숙보다 느리므로써 세련되게 행동하는 학급동료의 문화적 분위기가 힘겹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날때

성숙초기의 소녀들은 우울증을 나타낸다.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의 전환의 시기는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중요하다. 여학생들의 자존심이 첫째,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둘째,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로의 두단계의 변화보다 오히려 중학교 2학년인 8학년 말의 한 전환만이 있다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후기는 청소년 초기에 시작된 자존심의 쇠퇴,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 그리고 사기저하의 양상은 소녀들이 성숙했을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 초기에 경험했던 변화는 사기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구나,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저학년일수록 더 직접적으로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갈등적 기대에 직면하게 된다.

결혼, 가족 그리고 가정외에서의 취업은 우리 사회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 평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용기가 저하된채 살아가야 할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학교만 다른 상황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실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학교교육이 우선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장이 되어야 사회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교교육의 변화로 학생들의 사고가 변화하고, 나아가 그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갈 사회가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올바른 길이다.

나. 남녀평등교육의 법적 근거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1항에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계발시키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경의 이념을 견고히 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1979년 국제인권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3조에서 제시되고 있다.

1967년 11월 7일 유엔 총회결의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이 1985년 1월 26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전문(前文)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민중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차별철폐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제 2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국내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체계내에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있는 국내 법원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여성의 효과적 보호를 확보할 것
-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하며 공공당국과 기관이 공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보장할 것
-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도 철폐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 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항들이 게재되어 있는 국내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헌법 제 9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인권의 보장), 제 10조(국민의 평등), 근로기준법 제 5조 및 제 111조, 노동조합법 제 11조, 국가공무원법 제 35조, 지방공무원법 제 33조, 민사소송법 제 1조, 가사심판법 제 1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 3조 6호, 형법 제 297 내지 제 306조(정조에 관한 죄), 형사소송법 제 229조(배우자의 고소)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는 제 10조는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

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진로와 직업지도, 취학기회와 자격취득을 위해 동일조건이 확보되어야 하고 평등한 직업훈련과 동일한 교육과정과 동일한 시험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중 다)항을 보면,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고무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 남녀역할의 정형화된 개념의 철폐를 강조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남녀공학 등 다양한 종류의 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용 도서 뿐만 아니라 지도서를 개정하는 것과 같은 지도방법을 조정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법에서의 제시는 헌법 제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 5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 한쪽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과서 지도계획의 개정'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의 해소를 위해서 불가결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 또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伊東良徳, 大脇雅子, 紙子達子, 吉岡睦子, 1991).

1979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여성 행동계획"은 「세계여성의 해」에 정할 것을 결의했던 것으로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6〉 남녀간의 평등의 달성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만족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능력과 재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와 기회 및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전통적으로 분담되었던 기능과 역할의 재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은 물론,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여성에게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영역은 가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확립,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남녀의 공동분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로 교육에 의존해서 사회적 태도를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3.국가적 행동을 위한 특수분야(③교육과 훈련)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9〉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급 교육기관의 등록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당히 뒤지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일찍 중도에서 학교를 그만둔다. 의무교육이 아닐 경우 선택권이 부모에게 주어지면 그들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교육의 우선권을 준다. 교육의 본질이나 내용면에서도 차별은 자주 나타난다. 여학생이 선택하는 분야는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각기 다르다는 전통적 태도, 개념, 인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81〉 교육이나 훈련의 프로그램과 과목은 남녀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과목이외에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가르쳐야 할 과정은 공업 및 농업기술, 정치학, 경제학, 사회문제, 책임있는 부모상, 가정생활, 영양과 보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82〉 교과서와 그밖의 교육자료는 재평가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개편해야 한다. 교수방법도 수정되어야 하고 국가적 필요에 적응하여 남녀차별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교정해야 한다.

〈83〉 교육과 훈련에서 차별의 실태를 찾아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교수방법 특히 시청각 기술은 장려되어야 한다.

1980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는 1975년에 개최되었던 「세계여성의 해」 세계회의의 권고사항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 그동

안 이루어진 진행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새로운 자료와 연구에 비추어 여성 10년 후반기를 위한 계획들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계획의 ‘경제·사회발전에의 여성의 완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와 전략’중 교육과 훈련의 목표 〈166〉과 행동 우선순위 분야 〈182〉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66〉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전형을 배격하고 가족, 노동시장, 사회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에 대한 보다 새롭고도 적극적인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유도한다.
- 〈182〉 교육과정과 학습자료속에 성에 대한 편견이나 소녀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통속적인 묘사를 제거하도록 검토하고, 남녀구별이 없는 오락과 학습자료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1985년 7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10년 사업평가를 위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의 평등부문에서도 기본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59〉 온 가족이 가사임무를 나누어 질 수 있고 사회주류에 대한 여성의 비공식 및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 전략으로 개발하여 여성차별을 조장하고 여성을 차등시하는 사회의 사조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기본전략 수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치로서 사회참여에의 평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 〈81〉 교육과 훈련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관행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활동이 있어야 하고 우수한 교육과 훈련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차별이 인적자원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 〈82〉 정부 및 민간기구들은 모든 학교와 대학의 교과과정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여성사와 관계되는 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여성 문제가 일반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도록 촉구하며 여성학 분야의 연구기관을 강화하여 토착적인 연구활동과 공동연구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 〈83〉 남녀평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청각교재의 이용과 같은 새로운 교수방법이 장려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교과과정, 교육목표는 동등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교과서와 같은 교육자료에 긍정적이며 활동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여성상과 모든 가사노동에 즐겁히 참여하는 남성상을 반영시키기 위해 수시로 교육자료를 평가하고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 개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발전부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본전략을 설정, 제시하고 있다.

- 〈121〉 합의된 노력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부모된 의무를 남녀가 다같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의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에 알맞는 사회 하부조직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책임의 공동수행을 용이하게 도와주며, 동시에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의식이 변화하도록 유도하여 새롭게 수정된 성역할을 사회가

용납하고 이를 증진시키며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의 수를 정하고 자녀의 터울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가사임무를 재검토하여 남녀에게 부과된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며 남녀 각자의 자립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도 도움이 되게 한다.

위와 같은 기본전략을 가지고, 기본전략 수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교육부문에서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67〉 교육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교과서 등 교육자료를 재평가하며, 교육담당자를 재훈련시켜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과내용을 확장하여 발전에 기여한 여성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유엔 여성 10년에 즈음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각국에서 비성차별적 교재를 만들고, 인권교육으로 여성학교육(한국의 경우,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작하여 1991년 현재 69개의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음)이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이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성별 역할분업의식을 불식하고 공정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변화되고 있는 의식을 감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때에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

1985년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은 남녀의 정형화된 역할에 따른 편견과 관습 및 기타 다양한 관행 등을 철폐하기 위해서 교육

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는 결의이다. 이와같은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시각으로 교과서를 점검하고 개정하는 작업은 국제적인 동향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책무이기도 하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정하였고, 동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동 제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개인의 불가침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고, 동 제 36조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유지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였으며, 동 제 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동 제 30조는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 제 32조는 근로권을 정하여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법 제 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 제 2조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체의 건전한 교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길러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하며, 근검노작하고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 제 4조는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 81조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단계와 각종유형의 학교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의 양성의 본질적 평등원칙을 확립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계기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되었고, 「남녀차별개선지침」과 「여성발전 기본계획」에서는 교과서에서의 남녀차이와 필수교과에서의 남녀차이를 없애고 평등한 성역할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남녀의 성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분화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발달을 방해하고 자유풀고 자립적인 발달과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세계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다.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과 교육과정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중시되는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성인세대가 고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학교가 제시하는 지식의 유형과 내용의 핵심이다. 지식은 존재구속적이며, 존재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Karl Mannheim, 1936) 어떠한 지식이든 그것이 나온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 사회구조의 맥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즉 교수계획은 다양한 정치적 집단들간의 세력갈등에서 나온 결과이며, 일단 그것이 기정화된 뒤에도 여러 집

단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영향미치려고 힘쓴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현재의 사회상을 반영함과 아울러 미래의 사회상을 예측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가게 될 미래사회에서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미래사회를 정확히 예측하여 그에 알맞는 지식과 정보를 제시할 때에만 그 성공적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1954년 제 1차 교육과정을 고시한후 1992년 제 6차 교육과정을 고시하기까지 38년간 6번의 교육과정 개정을 함으로써 약 6년 주기로 변화하는 사회의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해방후 1954년까지의 교수요목기(지식·기술·도의·국방교육 중시)를 거쳐 제 1차 교육과정 시기는 교과중심 교육과정기(1954-1963)로, 제 2차 교육과정 개정시기는 생활(경험)중심 교육과정기(1963-1973)로, 학문중심 교육과정기인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시기(1973-1981), 그리고 제 4차 교육과정 개정시기(1981-1987)와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시기(1987-1992)를 거쳐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시기(1992-)에는 21c에 대비하여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도덕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컴퓨터, 환경, 러시아어, 진로·직업 교과를 신설하였으며, 외국어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6차에 걸친 교육과정 개편시기에 비 인간화 경향을 극복하여 인간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성별 차이가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제 4, 5차 개정 교육과정 「운영지침」의 지도부문에서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화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

시하고 있으나, 제 6차 교육과정 「운영」부문에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로 구분, 설정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종 교육자료 개발, 보급과 교원의 지도능력 향상 등에 힘쓸 것을 제시하고 있다.(文教部, 1981, 1987; 교육부, 1992)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성취하도록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교과와 특별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남녀역할의 편견과 고정화된 사고방식을 없애고, 평등한 사고를 갖도록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않아, 오히려 평등교육에 역행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있다. 21c를 살아가게 될 미래의 사회상은 현재보다 더욱 민주화되고 평등화된 사회라고 예상할때, 현재와 같은 전통적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없이는 남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평등한 교육내용 삽입을 위해 교육과정 개정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여성교육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남녀의 위치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는 인간화를 도모하는 작업이고, 인간화는 남녀차별에 근거한 고정화된 사고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성취될 수 없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Ⅲ. 세계의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차별 실태

가. 한국

(한국여성개발원, 1993)

제 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각급학교 단계별 교과서 총 135권(국민학교 89권, 중학교 29권, 고등학교 17권)을 문

장과 사진 및 삽화로 분류하여 남녀차별적 내용 실태를 분석하였고, 심층분석을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도덕(23권), 국어(44권), 사회·역사(27권), 가정·기술(11권), 체육교과(12권)를 분석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인물 현황

가) 일반적 서술

(1) 등장인물

문장속에 출현하는 등장인물 가운데 성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여자인물 비율은, 국민학교의 경우 39.2%, 중학교의 경우 31.9%, 고등학교의 경우 9.4%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급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자인물들이 줄어들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여자인물 출현비율은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등장인물중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이 된 인물에 있어서도, 여자인물의 출현비율(국민학교 33.2%, 중학교 26.7%, 고등학교 24.5%)은 역시 학교급 단계가 높을 수록 낮아지며, 이같은 경향은 제 4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분석결과(국민학교 남녀출현비 2.64 : 1, 중등학교 3.74 : 1)와 유사하다. 다만 4차 때에 비해 5차 교육과정에서는 각급학교 단계 공히 보다 상향된 여자인물 비율을 보여준다.

사진 및 삽화 속에 출현하는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를 보면 국민학교 39.1%, 중학교 37.7%, 고등학교 24.5%의 여자 출현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 4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분석결과(국민학교 35.6%, 중학교 36.2%, 고등학교 31.1%)와 비슷한 출현분포로서 제 5차 교육과정에 서도 여전히 남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출현장소

문장에서 인물이 어떠한 출현장소를 배경으로 등장하는가는, 인물의 성별에 따른 역할 또는 활동영역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녀인물이 모두 출현장소를 알 수 없게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중등학교 단계를 제외한 국민학교의 경우, 여자의 주요 출현장소는 「가정」인 반면, 남자의 주요 출현장소는 「야외」와 같은 가정밖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녀별로 주요 출현장소가 분명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던 제 4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인다. 다만 여자인물의 경우 출현장소의 편중현상이 심했던 4차 때에 비해, 5차 개정시에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사진이나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배경을 이루는 출현장소를 성별로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여자는 「가정」 33.9%, 「야외」 33.7%의 순이고, 남자는 「야외」 47.4%, 「공공·일반시설」 20.8%, 「가정」 19.7%의 순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중학교: 여자 35.9%, 남자 17.4%, 고등학교: 여자 17.5%, 남자 9.3%)에서도 가정에서의 여자 출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통계치는 국민학교 단계와 중등학교 단계에서 모두 제 4차 교육과정에서 보다 오히려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묘사가 강조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3) 직업

문장에서 직업과약이 가능한 등장인물중, 직업을 가진 남녀인물의 출현빈도가 극히 낮은 중등학교의 경우를 제외한 국민학교의 경우를 보면, 남자(111명)에 비해 여자 직업인의 출현빈도(16명)는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전 직종에 걸쳐 다양한 직업양상을 보여주는 남자 직업인에 비해 일부 직종에 제한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남자직업은 모두 22종의 직업영역에 종사

하고 있는데 반해, 여자직업인은 총 16명에 불과한 절대수의 적음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교사」를 중심으로 한 8종의 직업영역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이나 삽화에 등장하는 남녀의 직업활동 묘사경향을 보면,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는 남자의 경우 41.7%가 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 데 반해 여자는 27.3%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남녀의 직업활동이 42.3% 정도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묘사되고 있다. 가장 다양한 직업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국민학교 단계의 경우 여자가 등장한 직업은 25종인데 비해 남자가 등장한 직업은 36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직의 경우 약 60%를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통념화되어 있는 교사, 간호사가 점하고 있다. 이처럼 여자에게 제시된 직업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문학작품 등

(1) 저자

여자 저자의 비율은 국민학교 9명(23.1%), 중학교 8명(5.5%), 고등학교 19명(7.6%)로 총 36명(8.3%)이고,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남자저자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인공

문장속에서의 주인공중 여자 인물의 비율은 국민학교 20.7%, 중학교 12.5%, 고등학교 17.9%이며, 이는 일반적 기술형태의 문장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비율보다 낮다. 주인공의 성별에 따른 출현장소의 차이 역시 초·중등학교 단계 공히 여자는 가정, 남자는 야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학작품 등 삽화에서의 주인공중 여자 출현비율은 국민학교 21.5%, 중학교 21.2%, 고등학교

17.7%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 주인공의 출현장소는 국민학교(37.4%)와 중학교(42.9%)의 경우 가정, 고등학교 야외(25.0%)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남자 주인공은 야외(국민학교 37.6%)에서 높은 출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 심층분석 : 교과서별 각급학교 단계에 나타난 남녀역할

가) 도덕과

국민학교 도덕과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 여자 주인공의 비율을 보면 25.3%에 불과한 것을 보면, 국민학교 도덕과가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 주인공이 비교적 많이 등장하고 있는 덕목을 보면 ① 개인생활영역에서는 생명존중(40.0%), ② 가정·이웃생활에서는 애교·애향(42.9%), 가정애(38.9%), 예절(38.5%), ③ 시민생활에서는 협동(42.1%), 공익(36.8%), ④ 국가생활에서는 민족애(36.8%), ⑤ 통일·안보생활영역에서는 북한현실 인식과 비판(40.0%)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생활영역의 사려(4.8%), 시민생활의 준법(11.1%), 정의(12.5%), 국가생활의 국가애(13.0%), 통일·안보생활영역의 국방·안보(9.5%)는 10%안밖의 낮은 여자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강조되어왔던 가치 즉 모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 예절, 타인에의 봉사 등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으며, 남성들에게는 사회, 국가적 안목과 신중하고 굳센 의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학교 도덕과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에서 효, 경로와 같은 수직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대가족제도 하에서의 가족규범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의 논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 국어과

국민학교 국어과에서의 성별 역할분업은 가사노동, 직업,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으로 분류, 설명할 수 있다. 가정을 배경으로 성인인물의 활동을 그리고 있는 삽화에서 여자는 ‘육아·자녀교육’(36.2%)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는 ‘식생활 관련 활동’(23.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자는 ‘육아·자녀교육’(26.4%), ‘가족·손님맞이·배움’(18.1%) 등으로 나타나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먼저 성인 여자와 남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 나타난 ‘육아 및 자녀교육’ 장면을 실제 삽화를 통해 그 활동양상의 차이를 보면, 자녀의 학습지도와 자녀양육 문제의 주된 책임자는 어머니로 묘사되고 아버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로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일깎기, 음식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간호, 장보기 등 가사노동의 대부분이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들의 역할영역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아버지나 한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식사대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학교 단계에서의 직업의 묘사는 직업인으로 등장하는 총 249명중 여자는 57명으로 22.7%이다. 이러한 통계치는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인 41%에 못미치는 수치이고, 여성들은 간호사나 평교사로, 남성들은 의사, 교장, 교감선생님으로 그려지고 있다.

중등학교 국어과에 기명으로 실린 작품의 저자들은 중학교의 경우 93.3%가 남자이고, 고등학교도 93.5%로, 중·고등학교 국어과에 실린 작품들은 거의 남성작가의 작품이다. 또한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자가 22.4%이고, 고등학교는 17.1%이다. 훌륭한 인물소개의 여성의 예는 에브퀴리의 일화가 유일하다.

다) 사회·역사과

국민학교 사회과에서의 남녀의 사회적 역할 묘사는 남자는 사회, 생산자, 직업인, 상위직, 지도자로, 여자는 가정, 소비자, 비직업인, 하위직, 봉사자로 묘사되고 있다.

중등학교 사회과에서는 ① 가부장적 관념 ② 여성의 역할변화에 대한 묘사 부족 ③ 여자에게 강조되는 예절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전통사회에서의 가족구조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입각하여 가장 또는 가부장적인 남자를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성원간의 합리적이고도 평등한 역할분담의식에 의한 가족간의 역할규정이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정되고 있다. 둘째, 사회과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수용은 비교적 자주 언급되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인간관계로서의 남녀관계와 그에 따른 여성역할의 변화 등에 대해 특별히 관심있게 기술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루는 사회과인 만큼, 인간관계의 근본 도리로서 예절을 강조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절은 남녀에게 다같이 중요한 덕목임에도, 여자에게만 강조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진이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반복적으로 실려있다. 이는 예절바름이 여자들의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제의 사회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셈이나, 이로 인해 학생들이 현상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사과에서는 기존의 역사서술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역사속에서의 여성역할 또는 그 활동상에 대한 충분한 기술 또한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적 제한을 감안하여,

중등학교 국사과에서 과연 여자들은 어느 정도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능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소극적인 묘사 ②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묘사 부족 ③ 역사적 여성인물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라) 실업·가정과

국민학교 실과에서는 어머니는 가사일의 전담자, 여자는 가정일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부여를 위해 일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자만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착용케 하여 가정일은 모두 여자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실업·가정과에서는 가정교과는 가정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술은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남녀학생에게 각각 다른 능력과 태도를 강조하는 반면, 기술·가정교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과목목표는 가정과 기술교과의 목표를 통합, 조정하여 본 교과가 남녀학생에게 공히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내용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비교적 적절히 내포되어 있지만, 남녀별수로 되어있는 중·고등학교의 가정과 기술교과내용은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에 관한 것을, 남학생에게는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것, 특히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국력배양에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마) 체육과

초·중·고등학교 체육교과에서는 남자는 힘과 용기가 있고 탄력을 요하는 축구, 유도, 씨름, 철봉, 뽀름, 뽀름뛰기, 던지기, 철봉, 야구, 복싱, 레슬링 등으로, 여자는 율동적이고 리듬있는 리듬체조, 평균대, 피겨스케이팅, 무용, 마루운동 등의 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체력운동에 있어서도 순발

력, 근력, 지구력, 근지구력 등은 남성으로, 심폐 지구력과 유연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여성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다.

나. 일본

1)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역할

(伊東良徳・大脇雅子・地子達子・吉岡睦子, 1991)

가) 남녀의 출현빈도

국어교과서중 여성저자 비율은 국민학교에서는 이야기체에서 31.7%, 설명문은 8.2%, 그외 것은 10.7%이고, 중학교에서는 수필은 29.9%, 설명문은 10.3%이다. 주인공의 남녀비율은 국민학교에서는 여성이 27.1%, 남성이 72.9%여서 여성과 남성의 출현비율이 1:2.5 이었다. 중학교에서는 이야기체에서의 화자의 성별이 여성 14.8%, 남성 85.2%로 여성과 남성의 출현비율이 1:5이다. 수필에서의 등장인물은 여성이 33.8%, 남성이 70.1%이며, 설명문에서는 여남 각각 14.6%, 85.4%이다.

이를 보면, 국민학교에서는 여성저자가 적고, 이야기체의 주인공 중 여성비율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도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와 여성의 입장에서 읽어야 할 교재가 적고, 남녀를 의식하기 쉬운 중학생에게 남성의 입장에서 읽을 교재를 많게 한다는 것은 여성을 사회의 주변자로서의 의식을 키우고 학습의욕에도 영향미칠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교과서 역시 국민학교에서의 여남출현비율은 0.5:1이고, 중학교에서는 각각 0.6:1으로 여남비율이 1:2로 제시되고 있다.

나) 남녀역할 분업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중 이야기체의 경우 성인

여성이 주가 되고 있는 13화중 9화(69.2%), 성인남성이 나오고 있는 58화중 43화(74.1%)에서 직업이 소개되고 있다. 주인공의 부모가 나오는 것에서는 어머니가 60화중 4화(7.5%), 아버지가 50화중 19화(41.3%)에서 직업이 각각 소개되고 있다. 삽화의 경우에는 성인직업인 401인중 여성은 25.5%, 남성은 74.5%가 제시되고 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에서는 11명의 여성중 성인 여성은 9명으로 그중 5명(55.6%)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으며, 남성은 73명으로 성인남성은 50명이고 그중 29명(58%)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다. 주인공의 부모가 나오는 것에서는 어머니가 27화중 1화(3.7%), 아버지가 17화중 10화(58.8%)에서 직업이 소개되고 있다.

국민학교 국어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성인직업인 396인중 남성은 295인(74.5%)이고 여성은 101인(25.5%)이다. 그 내역을 보면, 교사와 가정교사 38인(37.6%), 농부와 기계공 28인(27.7%), 상업 14인, 간호사 4인, 미용사 3인, 우주비행사 3인, 어부 2인, 기타 등산가, 원예가, 곡예사, 학자, 버스안내, 가수, 수족관의 사육사, 조화 만드는 사람, 복덕방의 계원이 각각 1인씩이다. 이중 교사와 가정교사, 농부와 기계공, 상업, 간호사, 미용사만 87.1%를 점하고 있어, 전통적 직업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교과서에서도 역시 여성직업인중 48.7%(103인)가 교사이고, 농부와 직공이 11.8%(25인)이며, 간호사는 7.1%(15인)으로, 이들이 67.5%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상점경영(12), 하녀(6), 농부 및 기술자(4), 교사 및 가정교사(3), 목동(2), 곡예사(2)로 되어있다. 여성직업은 교사와 농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직업관에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직업인으로 묘사된 여성은 25%

정도인데 이는 일본 노동상황보다 훨씬 떨어진 것이다. 교과서는 아동의 주위에서 부여되는 성별 역할분업에 관한 편견을 시정하기는 커녕 사회현상을 초월해서 보다 고정된 편견적 역할을 심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어와 도덕교과서에서의 여성묘사중 여성비율이 높은 덕목은 개성존중, 겸허함, 이해심, 세계평화, 인류애, 인간애, 가족애, 인격존중, 전전한 이성파이 50% 이상이다. 개성, 노력의 내용과 장래성공에 결부되어 묘사되지 않고 능력신장과 탐구심 등의 방향으로의 덕목 제시가 필요하다.

사회교과서에서는 전업주부가 다수 출현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대부분이 자영업 또는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극히 한정적인 여성의 직업묘사 중 어머니의 직업은 가사일과의 양립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직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정교과서는 국민학교에서는 남녀구별없이 사 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삽화 및 사진, 그림속에 현실적인 남녀의 성별 역할 고정화 상황을 비판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교과서 자체가 남녀 별수로 되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 여학생을 위한 가정은 의류와 음식을 위주로 한 것이며, 남학생을 위한 기술은 금속가공, 목재가공, 기계 등의 전문적 지식으로 되어있어, 이는 고정적 직업과에 기본을 둔 직업훈련의 성격을 띠게 된다.

다) 남자다움, 여자다움

국어와 도덕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성은 개성, 노력의 내용과 장래 성공에 결부되어 있는 능력신장과 탐구심 등의 방향으로 덕목제시가 되지않고 있다. 또한 남학생이 호감갖는 여성상은

용모가 아름답고 연약하며 운명에 몸을 맡기는 여성으로 되어있다.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시기에 그러한 교재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주체적인 생활방향 정립이 되지않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추구하드로서 개성을 신장하고 각종의 재능을 육성하며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목적에 위배되고 있다.

라) 가사분담

국어교과서에 출현하고 있는 성인남성의 58화 중 1화(1.7%)가 가사를 행하고 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46화중 1화(2.2%)는 핑키칠을 하고 있는 것이며, 어머니가 등장하는 53화중 16화(30.2%)가 음식, 재봉, 편물, 세탁 등의 가사일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의 가사일은 자기 주위의 여성이 사망한 후나 혼자 있을 때 뿐이고, 남성의 가사일은 심부름과 청소이외의 가사듬기에 치중되어 있다. 가정교과서의 삽화에서도 어머니가 181인, 아버지는 71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학교에서의 성차별교육

(龜田溫子·館かおる, 1987)

가) 특성교육에 의한 편향된 교육

학교라는 장치는 여성의 능력형성을 위해 어떠한 기능을 해왔는가? 일본에서 전쟁전에는 현모양처 교육이 전형이었다. 전후에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여자는 가정”의 특성교육론이 대두되었다. 1969년 가정과 여학생에게만 필수였던 특성이론에 의한 교육과정의 차별이 전체 여학생을 위해 고정되었으며, 능력, 적성 그리고 성을 척도로하여 인간을 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일본에서 전후에 확대된 고등교육에서도 특성교육론이 존재하고 있다. 잠정적인 제도로서 발족한 단기대학은 1964년에 항구적인 제도로서

성립했다. 그것은 단기교육=여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특성교육론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교육내용도 능력을 신장하기보다 완성교육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학, 가정, 교육관계학과를 중심으로 학과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대학의 교육구조가 특성교육론적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전후 여자의 문화를 개방한 고등교육은 내부구조로서 특성교육론을 존속시켜 ‘남자는 대학, 여자는 단기대학’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성차별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교육, 학교제도를 매개로한 편향된 능력형성은 노동현장에서도 성별 고정화로 연결되고 있다.

나) 학교내부의 성차별 메카니즘

학교내에서도 현재적·잠재적으로 성차별이 내재되고 있다.

첫째는 학교 지식의 기본인 인간교육과정의 문제이다. 남녀에게 동일한 교육내용이 부여되지 않고 지식이 편중되어 배분된다. 가정교과는 여자만 필수라는 점과 이과계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여자고등학교 등 필수·선택과목, 또 진로에 연결되는 지식의 배분이 성별로 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형식교육과정외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성차별이 내재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수업장에서 학생이 학습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의 언어,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지를 배운다. 이렇게 학생에게 부여되는 폭넓은 의미의 지식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교사는 개인의 교수스타일을 통하여 지식에 대한 해석을 하고, 안색이나 눈초리라는 현재적 수법을 사용하여 지식의 전달을 도모한다. 그중 학생은 생활방법과 가치관, 실제 행동을 위한 지

식을 듣고 학생-교사간의 관계에서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간다.

이과를 전공할 사람을 찾는 장면에서 남자는 적극적으로 조를 짜고, 이과의 실험에서 다같이 행하고 관찰하라고 하면서도 여자에게는 보조적인 역할을 권하는 등 남녀에게 역할분담을 시킨다. 또 여학생이 물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교사의 태도 등과 같은 지식 전달의 과정에서 ‘남자는 주, 여자는 종’남자는 이과계, 여자는 문과계라는 잠재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수업 이외의 장면에서도 여학생이 청소를 하지 않았을때에는 남학생 이상으로 혼을 낸다. 교실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은 학교, 교실에 있어서 교사-학생간의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현재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다. 미국

1) 교과서상의 성차별

(Janice Pottker and Andrew Fishel, 1977)

교과서는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직업과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아동들의 자긍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보면 여성들은 직업적으로 성정형화되고 심리적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특성은 여성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가장 여성적’인 것을 대표로 삼고 있었다. 여성의 일의 세계는 대체로 왜곡되고 있다. 특히 계급이란 용어를 계속 왜

곡시킴으로써 여학생들이 미래의 직업훈련을 받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예로 2차 대전 이래 미국의 대다수 여성들이 가정주부들은 아니었음에도 교과서에서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정주부로 등장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하는 여성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직업은 국민학교 교사이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은 자라면서 자신들이 가정주부나 국민학교 교사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20개의 교과서 분석에서, 여성은 16가지 직업에만 등장하고 있고(교과서당 하나의 직업제시보다 더 적은 숫자임), 남성은 100가지 이상의 다른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기혼여성 중 한 명만 일하는 것도 아니며, 남성들 역시 일하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둔다.

이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여학생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도 하기 때문에(국민학교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이러한 교과서는 미래 성취가능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고를 형성하도록 돕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교과서는 여학생의 미래적응을 위한 문제를 향상시켜갈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사람들은 수학교과서가 성차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수치는 계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성역할 정형화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과 이야기를 예로 드는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 “국민학교 수학 교과서에서의 성정형화”를 통해서서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을 더 제시하고 있다. 또, 수학교과서에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직업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학교 수준에서 사용된 수학 교과서에서조차 성차와 성정형화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역사 교과서에서의 여성들”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역사 교과서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미국 역사에서 무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성들이 언급될 때도 있으나, 형식적으로 다루어졌다. 미국인 삶에서 노동계통의 지도적 역할을 한 여성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미국역사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로보다 오히려 보조적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학생들은 역사교과서를 통해 여성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자신들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된다. 남성들의 용감한 행동은 제시되고 있지만, 여성들은 그 중 한부분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서의 여성들의 이미지를 비판해야 하는 이유는 교과서의 내용 제시가 여학생의 자존심을 더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여학생이 나오는 그림을 적게 제시하고 있다. 남학생들이 흥미있어 하는 일을 여학생들이 행하는 것을 가끔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들이 발전기를 수선하고, 로케트를 연구하고, 12가지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학생들은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기만 한다. 사실상, 몇 교과서에서는 여학생이 자신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기술을 이행하고 있는 남학생을 찬양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여학생들은 탐구적, 도전적, 활동적으로 거의 성장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형태의 제시는 여학생을 위해서도, 그리고 남학생을 위해서도 역시 좋지 않다. 만일 여학생이 항상 수동적이라면, 남학생은 항상 능동적이어야 한다. 만일 여학생이 세련되지 않았다면, 남학생은 세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모든 일을 다 수행한다면, 여자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거운 짐이 되어 결국은 옮길 수도 없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남학생들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남자이면 그 짐을 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여학생 역시 존재하지 않는 직업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미국여성들 모두가 가정주부인 것도 아니고, 국민학교 교사인 것도 아니다. 기혼 여성들이 일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 역시 일하고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일관되게 충분한 직업적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과서가 그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여성을 고정형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부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교과서는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부모가 딸에게 간호원 뿐 아니라 의사도 되기를 기대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교과서는 간호원이 된 여성의 그림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학교의 정책결정자들은 여성과 그들의 활동을 절대로 왜곡하고 있지 않다고 교과서속에서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는 여성에게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정확한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2) 학교교육과 여성

(American Association Woman Educational Foundation, 1992)

1983년에서 1987년까지 9가지 우수한 교육저널에 나타난 교육개혁에 대한 138개 논문들에서도 교과서의 1% 이하가 성평등을 언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 논문만이 성평등에 관련되어있는 교육과정과 교수법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국가교육협회가 관여되어 있는 1990년 조사는 교육에서

의 평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조직과 기관에 의해 후원되는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영어와 사회 교과서의 교육과정 내용에서 성과 종족을 언급하고 있었다.

가) 교육과정과 성

1970년대초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성편견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자료를 조사했다. 1975년에 출판된 아동들의 고정형화(Dick and Jane : Sex Stereotyping in Children's Readers)는 교과서, 예, 사례, 그리고 기본서에서부터 과학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의 체계적 조직을 전달받고 있는 소년소녀들에 대한 메시지를 상세하게 점검하고 있다. 1971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13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여성에 관한 자료를 삽입하는데 교과서의 1% 이상 들어가도록 할 수가 없었다. 여성의 삶은 모두가 사소하게 다루어지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어 있었다. 1980년대 후기의 연구는 비록 성차별주의가 초등학교 교과서와 기본서에서 감소되기는 했으나, 문제는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가? 1980년 23개 연구에서 어떤 도서가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인용하고 있다. 교과서는 백인교육과정보다 비지배적 집단에게 더 호의적인 것이라는 것, 다중문화적 도서는 모든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가 비성차별적이고 다중문화적 교육과정 자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성역할 고정형화는 교육과정에서 비정형화된 역할로 남녀를 묘사하고 있어 그러한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성평등과 인종평등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지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교수와 사서, 저자, 그리

고 지방이나 정부의 학교 당국자들은 정형화를 감소시키고, 제거하거나 교육과정을 확대시키고 민주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실질적으로 모든 교과서 출판자들은 이제 비성차별적 언어를 위한 지침서를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모두 저자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교과서에서의 변화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전면 없앨 수는 없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보통 ‘유명한 여성’ 또는 저항운동에서 활동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이종적이고 균형적으로 다루는 것은 드물다, 그리고 여성의 시각은 거의 없으며, 문화는 그들 자신의 용어로 표현된다.

1990년 연구자들은 성평등과 인종평등을 다루도록 계획된 교과서조차도 여성학자의 부정, 역사 개발자와 사건의 창시자 그리고 기술개발의 사건으로부터의 여성 삭제 등 미묘한 언어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 편찬된 20개의 미국역사 교과서를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률, 전쟁에 대한 강조 그리고 여러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매일의 삶을 위한 공공정책을 논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과제는 순수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반성케 하고, 행동과 마찬가지로 감정으로 사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 교육과정에서의 평등의 개념화

반면 *gender*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 내용의 성평등과 인종평등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어 범주화하고 개념화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편견의 요소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이다. 교육향상을 위한 국가기금(NFIE)에서 국가의 국어교사위원회는 1984년에 교수자료중 6가지의 보편적인 성편견 유형을 목록화하였다.

소녀제외, 양성 구성원들의 정형화, 소녀들의 종속, 여성들에 대한 자료의 분리, 현대의 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한 특수한 주의력, 그리고 문화적 부적절성,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 문화에서 능동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제외된다.

1990년에 성과 인종 평등프로그램 100개이상의 연구가 교실이 편견을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분류된 후 국가교육협회(NEA)는 11가지 종류의 성편견을 세분화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해냈다. “개방적이고 미묘한 행동”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을 위한 이중의 표준, 겸손, 명목상의 인종차별 폐지, 성취된 지위나 권위의 부정, 그들의 지위에서 성공한 여성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인종이나 성집단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개인들을 칭찬하는 전략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편견과 차별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때때로 “희생자”의 지위를 여성들에게 할당함으로써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곤 한다. 문제의 수필인 “창문과 거울으로서의 교육과정”에서 에밀리 스타일은 교육과정을 학교가 학생들 주위에 세워지는 건축구조와 비교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다른 경험세계로 나아가는 창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자신들의 실체는 거울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많은 창문과 적은 거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V. 세계화에 대비한 청소년의 성차별 극복방안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세계화가

우선적이다. 전세계를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활용코자 하는 의식, 세계 전 국민이 동등하다는 의식, 세계속의 한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인식을 통해 세계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청소년 교육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남녀평등 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인간화 교육의 기본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성역할 의식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명시적으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과 의도된 바는 아니나,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스며있는 남녀역할관은 각각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평등이념의 확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남녀역할관의 정립은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교육내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교과서 내용이나 교육과정 자료들이 성차별 의식을 강화하는데 공헌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각급학교 교과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 성역할 분업의식에 입각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는 주부로서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사회인이자 직업인이다. 남자는 주도적, 적극적이고 여자는 소극적, 감상적으로 묘사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 생활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역할의식이 자리잡아가는 시기인 국민학교 단계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과서에 여자인 어머니는 장소에 관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어머니는 주부이고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가사노동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만 맡겨진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남녀역할의식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담겨 있는 전통적 성역할 분업의식을 불식시키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한 남녀역할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을 교과서에 실기 위한 방안을 교과서 편찬과정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과,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편찬 및 집필

평등한 성역할 모형을 교과서에 실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 및 편찬과정에 이를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서 연구진이나 집필진 또는 삽화가들의 개인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 교과 집필진에의 여성 참여 확대하고, 2) 교과 집필진의 평등한 성역할 의식 교육을 실시하며, 3) 평등한 성역할 심의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4)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의 여성교육 전문가의 참여 및 여성교육 담당관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기획조정실 내에 여성교육담당관을 두고, 시·도 교육청 기획담당관실 내에 여성교육 장학사 및 시·군 교육청 학무과 내에 여성교육계를 두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부서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업무만이 아니라 여성교육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 심의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육내용의 개선

제 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 역할을 분석한 결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새로운 여성상의 제시

현재의 사회변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서의 남녀역할 변화에 대한 전망에 걸맞도록 새로운 여성상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요망되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여성 작가의 작품 및 여성인물 예화의 개발

현재 교과서에는 남성들의 작품이 주로 실려 있으며, 문학작품, 옛날이야기, 위인들의 일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 또한 대부분 남성들이다. 이로 인해 남성중심적 세계관과 인생관만이 가치로운 것으로 인식될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적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 작가의 작품이 보다 많이 실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화를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가령 옛날이야기나 동화 등의 경우 등장인물을 여자로 각색하여 재구성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3) 역사적 여성인물의 적극적 발굴

정치·역사발전 과정에 있어 여성은 거의 국외자인 것이나 다름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역사 서술 경향은, 지금까지의 역사발전이 남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여성인물의 적극적 발굴이 시급하며, 또한 이미 알려져 있는 여성인물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성의있는 기술을 통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남녀의 가사협업유형의 적극적 제시

여자의 역할 변화는 남자의 역할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가사노동은 가족원 모두의 책임인 만큼, 가사협업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육아

및 가사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다 자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앞치마를 착용한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5) 가정, 기술 교과와 공통 이수

현재 고등학교 단계에서 남녀 별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 교과와 기술교과는 성별 역할분업에 입각한 대표적인 교과이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에 적응하고 남녀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녀 학생 모두가 가정 및 기술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가정 교과의 경우 현대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교과 내용이 재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교과서에 평등한 남녀역할이 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남녀평등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전략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평등한 의식을 갖는 것은 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기초이다. 즉 평등한 남녀역할관을 정립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일하게 되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래의 삶을 밝게 이끄는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간화된 삶을 위한 초석은 남녀평등사회를 통해 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즉 남녀평등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선을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하는 일보임을 명심하고 교육적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청소년의 미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배려에 달려있다. 세계화 지향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가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 각자가 자아실현은 물론 자기충족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즐겁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인들의 책무중 하나이다.

참 고 문 헌

- 공보처. 1995.2.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 서울 : 공보처.
-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개선 연구」.
- 교육부. 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중학교 교육과정」/「국민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 교육부 교육과정담당관실. 1992. 「제 6차 중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바뀐다」, 교육부, 교육월보, 8월호, PP.82-90, P.83.
- 곽병선. 1991. 「좋은 교과서, 좋은 교육」, 한국 2종 교과서협회, 「교과서연구」, 제 9호, 서울 : 한국 2종 교과서협회.
- 권성아. 1979. 「교과서와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 연구노우트, 제 8권 제 4호, 서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김동위. 1993. 「청소년의 인간화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문교부. 1981. 「고등학교 교육과정」/「국민학교 교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 문교부. 1987. 「고등학교 교육과정」/「국민학교 교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 문교부. 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
- 文教部. 1988. 「文教 40年史」
- 민주교육추진 서울교사협의회 여성부. 1988. 「성차별 극복을 위한 자료집 I」 법제연구원. 1987. 「문교법전」.
- 鄭世華. 1977. 「女性能力開發을 위한 敎育課程開發의 方向」, 辛世浩(편), 「한국인의 남녀역할관」,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조선일보. 1995. 「세계 중심국가 도약목표」.
- 차인석. 1994. 「교육의 세계화와 세계화의 교육」, 교육부(편), 「교육월보」, 2월호, 서울 : 교육부, pp.36-9.
- 한국여성개발원. 198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관계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1990. 「학생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분석」,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5a.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서울 : 한국 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5b. 「남녀차별개선지침」,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5c. 「여성발전 기본계획」,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6.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90. 「학생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분석」,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91. 「여성의식조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韓國青年文化研究所. 1982. 「韓國敎育 2000年史」, 서울 : 民友出版社.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2. 「청소년 문화활동의 문제와 발전과제」, 서울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한국청소년연구」, 제 1권 제 1호, 서울 : 한국청소년 연구원.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서울 : 한국청소년 연구원.
- 한명희. 1995. “세계화 교육의 현황과 방향,” 「교육월보」, 1월호, 서울 : 교육부, pp.36-9.
- 龜田溫子・館かおる. 1987. “學校におけるセクシズムと女性學教育”, 女性學研究會編, 「女の目で見る」, 東京 : 勁草書房.
- 伊東良徳・大脇雅子・紙子達子・吉岡睦子. 1991. 「教科書の中の男女差別」, 東京 : 明石書店.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an Educational Foundation. 1992. How Schools Short Change Woman.
- Anna Maria Piussi. 1990. “towards a Pedagogy of Sexual Difference : education and female genealogy,” Gender and Education, Volume 2, Number 1, Journals Oxford Ltd.
- Karl Mannheim. 1936. Ideology and Utopia, N. Y. : Harcourt,Brace and World. Janice Pottker and Andrew Fishel. 1977. “Textbooks,” Sex Bias in the Schools.
- Mairtin Mac an Ghaill. 1991. “Schooling, Sexuality and Male Power : towards an emancipatory curriculum,” Gender and Education, Volume 3, Number 3, Journals Oxford Ltd.
- Margaret B. Sutherland. 1981. Sex Bias in Education, Oxford : Basil Blackwell.
- Nancy Frazier, Myra Sadker. 1973. Sexim in School and Society,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 Patricia L. Geadelmann. 1985. “Sex Equity in Physical Education and Athletics,” Susan S. Klein(ed.), Handbook for Achieving Sex Equity through Education,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ue Middleton. 1987. “The Sociology of Woman’s education as a field of academic study,” Gender and Politics of Schooling.